

# KIA 박찬호 “내가 톱타자다”



시즌 초반 부침 겪다 5월 존재감 과시  
1번 타자 복귀하며 연일 ‘멀티히트’

KIA 타이거즈 박찬호가 시즌의 5월을 열었다. 박찬호는 지난 시즌 KIA의 키플레이어였다. 톱타자 박찬호가 끈질긴 승부와 허를 찌르는 안타로 상대를 흔들면서 답답한 경기 흐름을 바꾸곤 했다. 재치 있는 주루 플레이를 바탕으로 박찬호는 부상에도 위협적인 상대가 됐다. 박찬호의 부상 후흔도 돋보였다.

시즌 초반 부침 겪다 5월 존재감 과시  
1번 타자 복귀하며 연일 ‘멀티히트’

박찬호는 “타격감이 나쁘거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가거나 상대의 호수비에 잇달아 막히면서 발이 묶였던 박찬호는 기분 좋게 5월을 열었다.

지난 1일 KT전에서 서건창에게 1번을 맡기고 9번 타자로 나선 박찬호는 이날 4월 4일 KT전 3안타 이후 처음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불넷도 하나 얻어내면서 만점 활약을 했다.

그리고 1번 타자로 복귀한 3·4일 한화전에서 연달아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톱타자의 복귀를 알렸다.

박찬호까지 감을 잡으면서 KIA는 다양한 조합으로 테이בל세터를 구성하면서 기싸움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상대 입장에서 매 이닝 쉬어갈 틈 없는 출중한 타선이 구축됐다.

지난해 강력한 골든글러브 후보였던 박찬호는 부상과 팀의 포스트 시즌 탈락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수상에 실패했다. 올 시즌 KIA가 1위 질주를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간절한 꿈인 우승과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노릴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반등에 성공한 박찬호가 1경기 차로 좁혀온 NC를 따돌릴 수 있는 ‘키 플레이어’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7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예정됐던 KIA와 삼성의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이날 선발 등판을 준비했던 KIA 양현종은 8일 그대로 마운드에 오른다. 삼성에서는 7일 선발로 준비했던 좌완 이승현 대신 5연승 중인 우완 원태인이 출격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박찬호가 5월 첫 경기부터 3차례 출루에 성공하는 등 분위기 반전을 이루면서 톱타자로서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네일 ‘월힐릭스플레이어’ 수상

월간 WAR 1위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사진)이 3·4월 월간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1위를 차지했다.

네일은 KBO와 한국셀렉트유주식회사(이하 한국셀)가 함께 시상하는 ‘월힐릭스플레이어’의 첫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야수 부문에서는 키움의 김혜성이 수상자가 됐다.

‘월힐릭스플레이어’는 WAR을 기반으로 선정하며 네일은 3·4월 WAR 1.70으로 투수 부문 1위다.

3월 27일 롯데와의 홈경기를 통해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 네일은 3·4월 4경기에 나와 36.2이닝을 소화하면서 1.47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을 기록했다. 3개의 볼넷만 허용하는 등 7사수구를 기록한 네일은 탈삼진은 38개를 뽑아냈다.

평균자책점, 다승 1위를 기록한 네일은 WHIP(이닝 당 출루 허용률)도 0.98로 묶으면서 2위를



기록했다. 타자 부문에서는 키움 김혜성이 KBO 첫 ‘월간 10-10’에 빛나는 김도영을 0.01 포인트 차로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김혜성은 4월 마지막 경기였던 30일 롯데전에서 2개의 홈런 포함 4안타를 펼치면서 WAR을 끌어올리며 김도영을 2위로 밀어냈다. 시상식은 소속구단의 홈구장에서 5월 중에 진행되며, 네일과 김혜성은 시상금 100만원을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상승세 안병훈 “PGA 특급대회서 우승해 볼까”

10일 웰스파고 챔피언십 개막...우승상금 48억8000만원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한국인 에이스 역할을 하는 안병훈(32·사진)이 내친김에 투어 첫 승에 도전한다.

안병훈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 할로 클럽(파71)에서 열리는 PGA 투어 웰스파고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올 시즌 8개 특급 대회 중 하나인 이 대회는 우승 상금만 360만달러(약 48억8000만원)에 달한다. 세계 톱 랭커들이 출출동하는 대회지만 안병훈은 기세 싸움에서 뒤지지 않는다.

안병훈은 지난 6일 더 CJ컵 바이런 넬슨 공동 4위에 오르며 올 시즌 네 번째 톱 10 성적을 거뒀다. “지금 이 골프 선수 경력 가운데 가장 잘 치는 것 같다”고 자평했던 2022-2023시즌 때보다도 흐름이 더 좋다.

안병훈은 지난 시즌 출전한 31개 대회에서 준우승 1차례를 포함해 톱 10에 4차례 진입했다.

올 시즌에는 아직 12개 대회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1월 소니오픈 준우승을 포함해 톱 10 4차례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4월 발레로 텍사스오픈에서 연속 첫 탈락했으나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메이저대회 개인 최고 성적 타이(공동 16위)를 세우며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안병훈은 지난 시즌 52.17%(179위)에 그쳤던 드라이브 정확도를 올 시즌 61.82%(98위)로 끌어올렸고 그린 적중률도 64.13%(171위)에서 70.67%(11위)로 높였다.

안병훈은 이 대회를 통해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공고히 할 수 있다. 올림픽 출전권은 대부분 한 나라당 2장씩 주어지는데 안병훈은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거치며 세계 랭킹을 32위로 끌어올렸다.

이로써 임성재(38위)를 제치고 김주형(23위)에 이은 한국 선수 두 번째 랭커가 됐다. 안병훈 외에 한국 선수로는 김주형, 임성재, 김시우가 출전한다.

이 대회는 세계랭킹 2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3차례(2010, 2015, 2021년) 우승해 ‘로리의 텃밭’으로도 불린다. 세계랭킹 톱 10 중에선 아내의 출산을 앞둔 스코티 셰플러(1위·미국), LIV 골프로 이적한 온 람(5위·스페인), 무릎 통증이 있는 루드비그 오베리(6위·스웨덴)만이 결장한다.

올해 대회에선 69명의 선수가 컷 탈락 없이 우승 경쟁을 벌인다.



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같은 기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의 더 둔스골프앤드비치클럽에서 열리는 머틀비치 클래식(총상금 400만달러)에 출전한다.

한국 선수 중에선 김성현, 이정훈, 노승열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고진영, LPGA ‘두 토끼’ 잡는다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타이틀 방어·시즌 첫 승 노려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달러)에서 타이틀 방어와 시즌 첫 우승을 정조준한다.

고진영은 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파71·6656야드)에서 열리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 출전한다.

파운더스컵은 고진영이 지난해를 포함해 세 차례나 우승한 각별한 인연을 지닌 대회다.

2019년 정상에 오른 데 이어 2020년 코로나 19로 대회가 열리지 않은 뒤 2021년 다시 우승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이어 지난해엔 당시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선던 이민지(호주)를 연장전에서 따돌리고 LPGA 투어 통산 15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후 고진영은 부상 등의 여파로 기록을 보이며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엔 4개 대회에만 출전한 그는 두 차례 톱10에 올랐으나 지난달 메이저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선 첫 탈락했다.

2주 전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골라내며 공동 4위(5언더파 279타)로 마쳐 파운더스컵 2연패 도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충전한 건 고무적이다.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이 올해 한 번도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한 가운데 강한 면모를 보여 온 이 대회에서 시즌 첫 우승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LPGA 투어를 창설한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2011년부터 열린 이 대회에선 고진영 외에 2015년 김효주, 2016년 김세영, 2018년 박인비가 우승한 바 있다.

올해 대회엔 고진영을 필두로 유해란, 양희영, 김아림, 신지은, 최혜진, 김세영, 지은희, 이미향, 안나린, 전인지, 임진희 등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들의 앞선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라는 거대한 벽이 돌아온다.

이번 시즌 앞서 열린 LPGA 투어 10개 대회 중 무려 5승을 쓸어 담은 코다는 세브론 챔피언십 이후 3주 만에 실전에 나선다.

코다는 현재 자신이 출전한 대회를 기준으로 5개 대회 연속 우승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대회까지 제패하면 LPGA 투어 최초의 ‘6연승’을 달성한다.

5개 대회 연속 우승은 코다와 더불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200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연장전에서 고진영에게 겨 2연패가 불발됐던 이민지를 비롯해 정상급 선수들이 다수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